

The Segye Times
 發行-印刷人 黃煥案
 編輯人 兼筆 孫炳禹
 編輯局長 成百璣
 서울市 龍山區 漢江路3街 63-1
 (우편번호 140-740)



「아시아고속도」구체화 韓-日해저터널 뚫어 유럽연결

ESCAP 추진

연결 유럽까지 잇는 아시아 고속도로

아고속도로 노선정 과정
 에서 노선이 한국에 유리
 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趙
 壽遠 도로건설과 서기관을
 이달 말 ESCAP에 과견
 키로 했다.
 ESCAP이 지금까지
 구상해온 아시아고속도로
 예산노선은 한일 해저
 터널을 뚫어 일본과 한국
 을 연결한 뒤 한반도를 지
 나 중국 瀋陽과 北京을 거
 치며 北京에서 남북으로

독자提報한RO
 799(428)113

정부는 이에 따라 아
 시아 고속도로 노선
 을 추진할 예정이다.
 ESCAP은 80년대 초
 반 아시아고속도로 구축사
 업을 구상, 각국에 의뢰
 진을 했으나 중국 등 일부
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
 지 못했다. 그러나 최근
 중국의 자국을 거쳐 유럽
 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을
 들고 나와 이를 수용할 경
 우 아시아고속도로망 구축
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
 를 밝히면서 아시아고속도
 로 건설사업이 구체화되고
 있다.

아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
 진되고 있다.
 8월 건설교통부에 따르
 면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
 제사회(ESCAP)는 유럽 각국을 고속도로
 로 잇는 유로로드(EURO
 ROAD)처럼 아시아
 각국을 잇는 아시아고속도
 로 건설사업을 추진키로
 했다.

갈라져 유럽까지 이어지
 록 되어 있다. (朴賢淑기자)

「アジア高速道路」具体化 ESCAP推進

韓日海底トンネルを貫きヨーロッパと連結

アジア各国の道路を連結しヨーロッパまで結ぶ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が推進される
 ことになった。

8日、建設交通部によれば、国連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委員会(ESCAP)は、ヨー
 ロッパ各国を高速道路で結んでいるユーロ道路(EURO ROAD)のようなアジア各
 国を結ぶ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を推進することとした。

ESCAPは80年代前半、アジア高速道路構築事業を計画し、各国に意志を打診した
 が、中国など一部の国の反対によってなし遂げられなかった。しかし最近、中国が自国を
 経てヨーロッパへ行く新たな路線を取り上げ、それとこれを受け入れる場合、アジア高速
 道路網の構築事業に参加する意志を表明したので、アジア高速道路構築事業が具体化する
 こととなった。

政府はこれに伴い、アジア高速道路の路線選定の過程において、路線が韓国に有利に選
 定されるよう、趙寿遠道路建設課書記官を今月末ESCAPに派遣することにした。

ESCAPが今まで計画してきたアジア高速道路予想路線図は、韓日海底トンネルを貫
 き日本と韓国を連結した後、韓半島を通り、中国の瀋陽と北京を経て、北京から南北に別
 れてヨーロッパまで繋がるようになっている。(朴賢淑記者)